



제35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취임식 전경

목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관련 소식 1 ○ 제35대 홍준표경남도지사 취임 ○ 2012년 경상남도 건설공사 유공자 표창 수여 ○ 경남도, 2012년 도로정비 우수기관 선정 ○ 경남도, 2012년 소하천 정비사업 최고의 성과 달성 ○ 장재교 재가설공사 준공 ○ 마창대교, 하이패스 12월 14일부터 운영 ○ 경남도, 10개 항만시설 종합발전 계획 확정 ○ 경남도,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 ○ 경남도,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안 모색 ○ 경남도, 지방도 설해 준비 완료 ○ 2012년 대한민국 풍력에너지 대전 폐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 11 ○ 경전선 마산~진주간 복선전철 12월 5일 개통 ○ 마산만시화호 생명의 보고로 다시 태어나 ○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하도급자 보호방안 시행 ○ 건축절차 대폭 간소화, 허가기간 2~3개월 단축 ○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 “건설기술 韓流”로 5대 건설강국 견인한다 ■ 신기술 정보 17 ■ 건설기술심의 현황 18 ■ 계약심사 현황 18 ■ 기술인 나눔 정보 19
--	---



제35대 홍준표경남도지사 취임

-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경남시대'
여는 서민도지사 되겠다.



〈취임선서문에 서명하는 홍준표경남도지사〉

12·19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일 경남도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홍 지사는 이날 오전 마산 3.15 국립묘지와 창원 충혼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며 도청에서 사무인수서와 취임선서문에 서명하며 첫 업무를 소화했다.

도청 별관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홍 지사는 위기 극복과 혁신,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취임사에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낸 것은 당당한 경남시대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열망이자 피폐해진 도정을 바로 세워달라는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벼랑 끝에 놓인 대다수 서민의 삶,

소외된 사람들부터 꼼꼼히 챙기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서민 도지사가 되겠으며 가지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의 편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도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현재의 경남을 위기라고 진단하며 "위기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며 위기의 책임을 묻기 전에 극복할 방법부터 찾겠다"며 "이대로는 안되고 발상을 전환하고 스스로를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자료 : 공보관 보도지원담당
(055)211-2071

2012년 경상남도 건설공사 유공자 표창 수여

- 건설공사 품질확보, 공사현장 안전
문화 정착 및 건설기술 향상 공로

경남도는 12월 26일 2012년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건설기술발전에 기여한 건설공사 유공자 17명에게 도지사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해용 회계과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건설기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을 전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춘수 경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건설산업 환경에서도 도내 건설현장 곳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건설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때일수록 건설기술인들이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 받는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표창대상은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시공업체 관계자,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책임감리원, 현장점검에 참여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인 전문가들로 발주청의 자체평가와 도의 확인평가를 통하여 평가결과 80점 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평가결과 시공 분야에는 (주)한반도건설 천삼수 이사를 비롯해 화성산업(주) 이홍중 대표이사, (주)연주건설 김태규 대표이사, 롯데건설(주) 박영오 부장, (주)오렌지이앤씨 최영환 부장, (주)선진건설 김종태 이사 등 6명이 수상했으며, 책임감리 분야에는 (주)건화 김덕순 이사, (주)동일기술공사 이종준 상무 박종완 부장, (주)유신 이성배 이사, (주)삼보기술단 조일권 차장 등 5명이 수상했다.

전문가 분야에는 창원대학교 박춘식 교수, 경남대학교 김승현 교수, (주)우진신일섭 대표이사, 덕진토건(주) 김성은 대표이사, (주)화성엔지니어링 서진호 대표이사, (주)동원건설엔지니어링 이병철 대표이사 등 6명이 수상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4년 제정된 '경상남도 건설공사 현장점검반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건설인'을 선발해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기술향상을 유도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표창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12년도에는 대형건설공사 425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총 9회에 걸쳐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지시정 688건,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262건을 처리한 바 있다.



〈2012년 건설공사 유공자 표창 수상자〉

▶ 자료 : 회계과 기술심의담당
(055)211-3552

경남도, 2012년 도로정비 우수기관 선정

- 국토해양부 주관 기관표창 및 우수
기관 지원금 7천만원 수상

경남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도로정비 평가에서 2010년 최우수, 2011년 장려에 이어 2012년에는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국도 814km를 비롯해 지방도 2,160km, 시·군도 5,863km에 대하여 재포장 및 포장도 보수 163Km, 교량 및 구조물 정비 1,088개소, 배수로정비 821개소, 차선 도색 3,353Km, 노건정비, 안전시설 등을 정비하여 경남을 찾는 관광객 및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지방도 부문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3년 1월 국토해양부장관의 기관표창과 더불어 우수기관 지원금 7천만 원을 받게 된다.

도로정비는 매년 여름철 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 정비,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자재 및 장비 점검, 교통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춘·추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한편, 경남도는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도로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도내 시·군별로 도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시·군에서 일제 정비한 도로에 대하여 10월말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재정비 및 현장 시정조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정비실적이 우수한 양산시, 창녕군 등 6개 시·군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유공자에게 연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도 및 시·군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큰 성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초부터 시·군과의 공조로 각종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정비·점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 위	시 부	군 부
1	양산시	창녕군
2	사천시	의령군
3	밀양시	함안군

<시군별 도로정비 경남도 자체 평가 결과>

▶ 자료 :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055)211-4674

경남도, 2012년 소하천 정비사업 최고의 성과 달성

-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등



〈창녕 소하천(세진천) 정비 전경〉

경남도는 재해예방과 도민들이 이용 가능한 친환경적 소하천을 만들기 위해 정비에 힘써온 결과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시행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전국 공모전에서 2011년 함양군 목현 소하천에 이어 2012년에도 양산시 원동천이 공동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2013년도 국비 인센티브 25억 원을 추가로 지원 받으며, 소하천정비사업 종합평가에서 경남도가 우수기관으로, 함안군과 창녕군이 최우수 및 장려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등 소하천정비사업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2년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창원시 등 17개 시·군 43개소, 35.4km에 6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현재 9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도 44개소 27.8km에 5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해 사전예방 등

내년 우수기 이전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여 조기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소하천 정비에 힘쓰고 있다.

▶ 자료 : 생태이천과 하천관리담당
(055)211-3944

장재교 재가설공사 준공

- '09년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



〈재가설된 장재교 전경〉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무안~부산) 상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장재교를 2009년도 말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한다고 밝혔다.

장재교는 지난 1992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화포천 일원의 연약지반으로 인한 측방유동으로 기울임이 발생하는 등 시설물 안전 D등급으로 판정되어 교량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재가설하게 되었다. 본 교량은 김해시 한림면 화포천에 소재하며 연장 50m, 왕복 2차로, 폭10.5m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한 39억 원을 투입하여 화포천 유역종합계획에 따라 100년 빈도 홍수량으로 설계한 합성형 라멘교로 김해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방문객은 물론 주민의 교통안전과 홍수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도내 노후 교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유지·보수를 통해 도민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 (055)211-5087

마창대교, 하이패스 12월 14일부터 운영

- 12월 1일부터 13일간 시험 운영 실시
경상남도는 마창대교에 12월 14일(금) 0시부터 하이패스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중에 있다.

마창대교 하이패스 시스템은 26억 원을 투입하여 5개월간의 공사 끝에 12월 1일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가 14일부터 정상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마창대교 영업소에는 일방향 기준 하이패스 전용차로 1개, 현금 또는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혼용차로 4개가 운영중이다.

하이패스 이용방법은 고속도로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선·후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하이패스 선불카드는 마창대교 영업소 및 차로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경남도는 이번 하이패스 운영으로 통행료 현금지불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해소됨은 물론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무정차 운행으로 통과시간 단축, 유류비 절감, 배출가스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되며, 마창대교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제도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경차, 장애인차, 경찰차, 응급구호차량 등에 적용된다.

경상남도 강병철 도로과장은 “하이패스 운영, 고객쉼터 조성 등 이용객 편의제고와 가포 IC, 양곡-완암간 도로 등 연계도로 확충을 통해 마창대교 통행량 증대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창대교 영업소에 설치된 하이패스 시스템〉

▶ 자료 : 도로과 민자지원팀당 (055)211-4684

경남도, 10개 항만시설 종합발전 계획 확정

- 항만이 각 도시의 장점을 살린 성장
동력 역할 수행 기대

경남도는 도내 10개 항만의 항만별 특성을 감안하고,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수립한 「경남항만발전 종합 계획」을 12월 6일(목) 최종보고회를 거쳐 확정했다.

*10개 항만 : 국가관리항(부산항 신항, 마산항), 지방관리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연안항(중화항)

경남항만발전 종합계획은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개발 계획 수립과 국가예산 반영 계획을 검토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반영한 항만사무의 지방 이양과 연안 시·군의 항만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경남도는 도내 항만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안으로, 국가관리항 14개 사업 1조 863억원, 지방관리항 37개 사업 7,090억원을 합쳐, 10개 항만에 총 51개의 사업과 추정 사업비 약 1조 7,953 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이번 『경남항만발전 종합 계획』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국비예산을 신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항만이 도시 발전의 견인차로써, 각 지역별 강점을 활용한 산업·해양관광·여객·수산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하였다.

(단위:억원)

구 분	비 전	추정 사업비
부산신항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9,848
마산항	중량화물 중추항만	1,015
진해항	동부경남 산업·레저 핵심항만	2,965
옥포항	조선산업 지원 항만	60
고현항	조선산업 및 지역생활 지원항만	200
장승포항	지역관광 거점항만	172
삼천포항	서부경남 지역거점 항만	385
통영항	해양레저·수산 거점 항만	948
하동항	조선·해양플랜트 거점항만	2,140
중화항	여객 및 화물수송 지원항만	220
합계(51개 사업)		17,953

<경남도내 10개 항만별 발전방안>

▶ 자료 : 항만물류과 항만정책담당
(055)211-2754

경남도,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

- 400여 업체 대상으로 4개반 9명으로
조사반 편성

경남도는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일괄하도급 위반 등 부실 및 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건설업체수가 시장규모에 비해 과다하여 업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주도 못해 상당수의 건설사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른 것으로 부실 및 불법 업체가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여 중견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시공능력 없이 수주한 후 일괄 하도급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겨 차익만 수취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 1천050여개 업체 중 2012년도 주기적 신고 및 신규등록 업체 등을 제외한 4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미달 여부와 일괄 하도급과 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 실태조사반은 도시계획과장을 반장으로 4개반 9명으로, 공무원,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및 건설기술인협회 창원지부의 지원인력으로 편성되었다.

먼저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부실 혐의가 있는 업체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2012년 12월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남도 실태조사반장인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및 불법으로 확인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설시장을 정상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055)211-4315

경남도,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안 모색

경상남도는 창원시 사파동과 김해시 진례면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수정 제안서가 지난 10월말 제출됨에 따라 양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B/C가 1.84로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그동안 경남도에서는 창원시, 김해시와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창원측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포함한 수정 제안서를 금번에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수정 제안서에는 창원측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당초 창원측 접속부를 토월 IC에서 사파 IC로 변경하는 사업노선(안)과 주 간선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대방로 지하차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량도 당초 5.9Km에서 7.8Km로 1.9Km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도 당초 1,461억 원에서 건설보조금 348억원을 포함한 2,048억 원으로 632억 원 증가하였고, 통행요금도 당초 2006년 불변가 기준 850원에서

2011년 불변가 기준 1,100원으로 250원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 관계자는 수정 제안된 사업노선 및 건설보조금 분담 등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및 시의회 의견을 12월말까지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내 본 사업의 추진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비음산터널 개설 시 창원시와 김해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기업 물류비용 절감, 김해시 서부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 : 도로과 민자지원담당
(055)211-4685

경남도, 지방도 설해 준비 완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 겨울 지방도상 도로 결빙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 결빙 취약지구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여 지방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염화칼슘 90.4톤, 모래 2,300m³ 등을 확보·비축 및 제설차량에 대한 점검도 완료하였다.

또한 창원시 외 17개 시·군 지방도상 교통두절 예상지구(104개소, 232km)에 대하여 제설자재 배치 및 관리 상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제설함 관리 불량 및 취약 구간 빙방사 미설치 등 조치 대상 25건에 대하여 지난 11월말 조치를 완료하였다.

특히, 창원터널 구간(대청교 ~ 장유 IC)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경남도청, 김해시, 김해서부경찰서, 김해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폭설로 인한 차량 통행 불가 및 고립 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였다.

이와 더불어 겨울철 설해에 대비한 3단계(준비, 경계, 비상체제) 근무상황 관리체제를 가동해 24시간 겨울철 재해에 대비하여 도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자료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055)211-5062

2012년 대한민국 풍력에너지 대전 폐막

- 94개 기업 302부스 참가, 노르웨이, 중국, 영국 등의 해외 바이어들과 미래지향적 네트워크 구축

국내 최초의 풍력산업 전문 전시회인 '2012 대한민국 풍력에너지대전 (Wind Power Korea 2012)'이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내·외 9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풍력산업의 중심지인 경상남도 창원컨벤션 센터(CECO)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풍력산업관, 그린산업 특별관,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등 전체 3개관으로 구성되어 3일간 산업비즈니스 관계자 3천여 명, 일반관람객 1만여 명의 총 1만3천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루어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에너지 전시로 자리매김했으며, 국내외 58개 업체와 바이어의 179건의 활발한 구매상담 결과 이 중 118억원 상당의 실질적인 계약이 추진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12월 5 ~ 6일(2일간) 한국 풍력에너지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내 풍력전문 석학 300여명이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녹색이동체험관, 기후변화 대응센터, 대안기술센터 등 일반인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체험관도 운영했다.

한편, 12월 6일에는 도내 에너지지킴이 200여 명이 참석하여 2012년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를 개최했고, 7일 그린 스타트 경남대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회도 가졌다. 경남도는 이번 전시회를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에서 풍력으로 특화하여 경쟁력을 극대화하였으며, 산업과 아카데미,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전시를 마련하여 산업 전시만의 딱딱함과 고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산업과 함께 대중들도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모델로 이번 풍력에너지대전이 향후 미래산업 전시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2 대한민국 풍력에너지 대전 포스터〉



▶ 자료 : 친환경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개발담당
(055)211-2734



지식정보

경전선 마산~진주간 복선 전철 12월 5일 개통

- 서울~진주간 KTX로 3시간 20분 걸려



〈마산~진주간 복선 전철 노선도〉

국토해양부는 경전선 마산~진주간(53.3km) 복선전철 사업을 12월 5일 개통했다.

‘13. 12월 착공한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사업은 ‘10. 12월 삼랑진~마산간을 우선 개통하였고, 12월 5일 마산~진주간을 개통함으로써 진주까지 전 구간(95.5km)이 복선전철로 완전 개통되었다.

총 2조 2,10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본 사업이 완공 됨으로써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 열차가 직통 운행(1일 10회/월요일 12회)하게 되어 고속철도 수혜 지역이 확대되고, 무궁화 열차로 6시간 50분 걸리던 운행 시간이 3시간 20분 대(KTX)로 단축된다.

또한, 선로용량도 40회에서 104회로 늘어나서 새마을, 무궁화 열차 운행 횟수도 1일 12회에서 18회로 증가되어 진주를 비롯한 경남 서남부지역 교통이 편리하게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전선 진주이후 구간인 진주~광양(51.5km) 복선화 사업도 2015년 개통을 목표로 활발히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본 사업이 완공되면 영·호남을 연결하는 철도물류 및 교통망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간 교류를 촉진하고, 남해안 지역개발 및 관광활성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02)2110-8786

마산만·시화호 생명의 보고로 다시 태어나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실시로
오염물질 관리 강화

“세탁기는 우수관이 아니라 오수관에 연결하셔야 합니다. 우수관에 연결하면 오염된 물이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탁기 바로 놓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창원시 환경수도과 공무원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으로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창원시, 녹색창원 21 등이 직접 아파트 단지마다 찾아다니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오염이 심각하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 시화호 등에서는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연안 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 : 해양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 사업 시행 등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

먼저, 마산만에서는 창원시, 경남도와 함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2단계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마산만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1단계(2008~2012)를 실시하여 목표수질(COD 2.5ppm)을 달성한 바 있으며, 제도 시행 결과 멸종위기종 동물이 돌아오는 등 해양생태계가 회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2단계에서는 비료, 세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총인(TP)을 대상물질로 추가 하였으며, 목표 수질을 COD 2.2ppm, TP 0.041ppm으로 설정하여 총 COD 4,493kg/일, TP 629kg/일을 삭감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화호에서는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경기도와 함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COD 3.3ppm, TP 0.065ppm을 목표 수질로 선정하여

삭감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시화호의 경우 2012년 조력발전소 정상 가동으로 인해 수질 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시화 MTV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단순히 중앙부처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및 학계가 참여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특히, 동 제도는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의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민관산학이 모두 참여하여 목표수질 및 삭감량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부산연안 등 타 특별관리해역에 대해서도 연안오염총량 관리제 확대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해양환경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으로 표명하였다.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1-4422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하도급자 보호방안 시행

-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부당특약 추가 등

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하도급자 보호방안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대비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 ②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였다.

*부당특약 확인시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6

건축 절차 대폭 간소화, 허가기간 2~3개월 단축

-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주택지 준비를 효율적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일조기준을 주민 이용 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2012년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심의 제도 개선) 현재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은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접수 일부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 절차를 새로이 두었다.

※건축심의 개최시기가 접수 후 2주부터 6개월 까지 지자체별로 다양하고, 심의결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가 전체의 70%를 상회함

*(심의 대상) 다중이용 건축물(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호텔의 면적 5천㎡이상 또는 16층이상 건축물), 미관지구내 건축물, 분양 건축물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건축 허가 기간이 단축(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2~3개월) 되는 등 건축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맞벽 건축 대상 지역 확대) 현재는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하여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하였다.

※맞벽 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현재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조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미터까지는 1미터 이상을, 8미터까지는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축물은 계단형으로 건축하고, 준공 후 이 곳에 샷시 등을 설치하여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개정하여 불법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천여건이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전국 단독주택 현황 : 총 414만 동

('11년 허가 : 51,747건 '12년 허가 : 50,417건)

-높이 9미터 이상은 일조환경 보호를 위하여 높이의 1/2이상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도록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기타 개선사항) 그 밖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 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현재의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7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 건축 통계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하는 등 세움터의 콘텐츠 강화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과 함께 건축행정 시스템(이하 세움터)의 서비스를 공간정보기반으로 확대하고, 통계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세움터는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민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서와 설계 도서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현재 세움터(www.eais.go.kr)는 건축 인허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에 기여하였지만, 인허가 위주로 구성되어 일반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공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금년부터 신규 구축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하여 12월 10일부터 시범운동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범운동을 통해 제공되는 대국민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했던 건축물 현황도면이 앞으로 세움터(인터넷)를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둘째, 인허가 등 건축통계자료를 지도와 차트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제공한다.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구역별 지도기반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건축물 현황 기준을 세부용도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

셋째, 금년 7월 새로 도입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중이용건축물(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매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건축법에 규정

이밖에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울시 양천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 후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 신고와 처리결과를 공간정보와 SMS를 통해 민원인과 공사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된다.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건축주 및 설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제공된다.

종이형태로 제공되던 지적도를 전자파일 형태의 지적전산자료로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직접 제공된다.

본 서비스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설계 오류 방지와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 자료 :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02)2110-6205

“건설기술 韓流”로 5대 건설강국 견인한다

- ‘그린·융합·스마트’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로드맵 수립

2016년까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쟁력을 세계 10위권까지 끌어올리고, 세계시장의 5%를 점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11년 국내 건설기업 설계경쟁력 19위
(건설기술연구원 글로벌경쟁력지표)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목표로 향후 5년간(‘13~’17) 건설기술 정책 로드맵인 「제5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근래 국내 건설업체는 국내 건설시장 침체와 건설물량 부족으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신흥국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술력 부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영역인 계획·설계 등 소프트 기술과 기초·원천 기술이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으로 글로벌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는데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100) 대비 기술수준 : 원천기술 72.8%, 기본설계 73.4%, 상세설계 85%, 기자재 81.5%, 시공관리 82.6%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 '11년)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설계·감리·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5단계에 걸쳐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관련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설기술 경쟁력 기반 구축, △건설 단계별 ‘소프트’ 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역량 결집 등 3대 주요전략과 7개 분야 52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기술의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건설기술인력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국가 간 전문 인력 교류 확대 등 글로벌 환경에 맞는 인력관리를 추진하고, 건설 전 분야 BIM 도입, 실험 인프라 확충 등 정보화·R&D도 확대 시행한다.

또한, 건설단계별 소프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력 중심의 발주체계를 구축하고, 설계·시공기준을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공공 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등 시공·시설물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이를 통한 강화된 업계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주요 국가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 간 협력회의 운영 등 500억 이상 방위적 건설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044)201-3554



가압지보 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현대건설(주)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78호
- 기술분야 : 토목
- 내용요약

직천공 강관다단 그라우팅으로 바닥을 제외한 굴착면 주위를 보강하고, 가압지보 시스템(강지보, 가압백과 자동제어 그라우팅 시스템으로 구성)과 슛크리트를 이용하여 굴착면 내부에 보강구조체를 구현한 후 굴착상부의 지반변위를 억제 및 복원시키며 굴착단면을 직접 굴착하는 비개착식 터널 공법(PSTM, Pressurizing Support Tunneling Method)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신기술은 구조물 하부를 관통하는 터널 구축시 유발되는 지반변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직천공 강관다단 그라우팅, 가압지보 시스템(강지보, 가압백과 자동제어 그라우팅 시스템으로 구성), 슛크리트를 포함하는 터널의 보강구조체를 시공하는 비개착식 터널공법이다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동국종합산업(주)
	(주)동아지질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70호
- 기술분야 : 건설기계
- 내용요약

지하구조물 조성시 버력 운반차량, 공사장비, 작업자 등을 적재하여(최대하중 45톤) 고속으로(최대 100m/분) 수직 운송이 가능한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신기술은 기존 권취형 드럼타입에서 탈피하여 가이드와이어 및 와이어 리빙 시스템을 적용한 리프트 기술로 최대 45톤 하중을 100m/분 속도로 수직 운송이 가능하며, 안전율을 극대화하여 별도의 작업자용 승강기 없이 작업자와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다.



건설기술심의 연왕

2012년 제8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결과

- 건 명 :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외 1건
- 심의일자 : 2012. 12. 13 (목)
- 요 청 자 : 거제시, 경상남도

의안번호	요청사항(발주청)	사업명	사업개요	심의결과
2012-8-1	실시설계(거제시)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 사업내용 : 돛형온실 4,069㎡, 생태공원 16,718㎡ · 사업비 : 235억원(공사 230, 보상 5)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조건부 가결
2012-8-2	실시설계 변경(경남도)	남하~가조간 도로 확·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진척리~남하면 무릉리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L=3.1km, B=10.5m (교량 L=160m, 접속도로 L=700m) · 사업비 : 151억원(공사 114, 보상 37) · 사업기간 : 2009. 6. ~ 2014. 6. 	조건부 가결

▶회계과 (055)211-3554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간	분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2년 12월말 현재 (누계)	계	723	829,885	774,564	55,321		
	공사	토목	297	518,953	479,828	39,125	
		건축	83	119,230	112,596	6,634	
		기타	66	93,551	88,604	4,947	
	용역	133	87,040	82,970	4,070		
	물품	144	11,111	10,566	545		

▶회계과 (055)211-3543



기술사 시험 일정 안내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2012년/ 제96회	2012.01.13 - 2012.01.19	2012.02.12	2012.03.23	2012.03.26 - 2012.04.04	2012.03.26 - 2012.03.29	2012.04.28 - 2012.05.10	2012.05.18
2012년/ 제97회	2012.04.20 - 2012.04.26	2012.05.13	2012.06.29	2012.07.02 - 2012.07.11	2012.07.02 - 2012.07.05	2012.07.28 - 2012.08.09	2012.08.17
2012년/ 제98회	2012.07.20 - 2012.07.26	2012.08.12	2012.09.21	2012.09.24 - 2012.10.05	2012.09.24 - 2012.09.27	2012.10.27 - 2012.11.08	2012.11.16

기사 / 산업기사 필기시험 안내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2012년/ 제1회	2012.02.03 - 2012.02.09	2012.03.04	2012.03.16	2012.03.19 - 2012.03.28	2012.03.19 - 2012.03.22	2012.04.21 - 2012.05.04	2012.06.01
2012년/ 제2회	2012.04.27 - 2012.05.03	2012.05.20	2012.06.08	2012.06.11 - 2012.06.14	2012.06.11 - 2012.06.14	2012.07.07 - 2012.07.20	2012.08.17
2012년/ 제3회	2012.08.03 - 2012.08.09	2012.08.26	2012.09.07	2012.09.10 - 2012.09.13	2012.09.10 - 2012.09.13	2012.10.13 - 2012.10.26	2012.11.23
2012년/ 제4회	2012.08.24 - 2012.08.30	2012.09.15	2012.10.05	2012.10.08 - 2012.10.11	2012.10.08 - 2012.10.11	2012.11.03 - 2012.11.16	2012.12.14

「해외건설기술정보 포털」 및 「우수설계 정보마당」 시범운영

2012년도 개정 콘크리트구조기준 기술강좌

1. 웹주소

- 해외기술정보 포털 <http://icon.codil.or.kr>
- 우수설계 정보마당 <http://www.calspia.go.kr>

2. 시범운영 기간 : 2012. 12. 26~

3. 시스템 보완 의견 제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외협력실
(031-910-0077, sahn@kict.re.kr)

1. 일 시 : 2013. 1. 14(월) ~ 16(수)

2. 장 소 : 서울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

3. 주 최 : 한국콘크리트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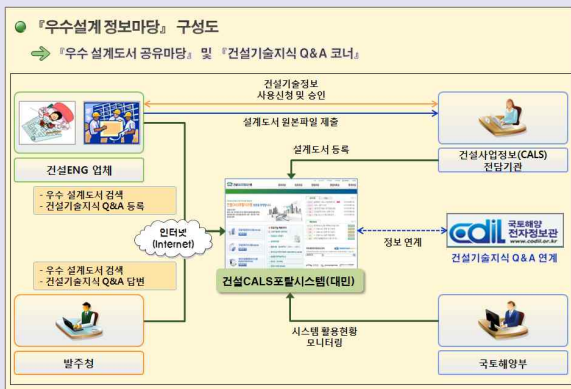
4. 주 관 : 콘크리트구조기준 개정위원회

5. 강좌내용 : 개정된 콘크리트구조기준 소개 및 예제 풀이



〈해외기술정보 초기 화면〉

※ 상세한 사항은 한국콘크리트 학회 홈페이지(www.kci.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설계 정보마당 구성 및 서비스 화면〉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3552~b, FAX : (055)211-3519

e-mail : moonsoo70@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